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결혼? 눈 높이가 하늘을 찌른다면!
062-226-3222

제1767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2월 3일 (음력 12월 16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3(土)	4(日)
구름조금 -4 / 8℃	구름조금 -1 / 10℃

News

- 종이사전 갈 곳을 잃다 ③
- 대학가 '공학인증제' 추진 ④
- 동계亞대회 2위 뺏길듯 ⑱

Jeollado

- 그 사람-이환의 前부총재 ⑦

Entertainment

- 떴다 '중년 스타' ⑧
- 광주출신 김우형 촬영감독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석류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조선산업에서 '여성파워'가 거세다. 2일 영암 대불산단 내 조선 기자재업체인 원당중공업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선박 블럭조립 작업을 하며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영암=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경제 블루칩 조선산업

"우먼 파워가 이끈다"

현대삼호重 등 600여명 '남성영역' 깨고 최고 도전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이자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산업에서 여성파워가 돋보인다. 섬세하고 성실한 여성 조선기능인력이 세계 최고급 선박건조에서 당당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남도 내 대표적인 조선업체인 대한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관련 협력업체 등에는 여성 기능인력 취업자가 부쩍 늘고 있다. 또 전남도가 시행하는 조선기능인력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급증하는 등 조선산업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45세 이하 미취업 주민 500여 명을 상대로 도청에서 열린 '조선기능인력 확대양성을 위한 설명회'에 1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석했다. 상대적으로 '거친 일'로 인식돼,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조선산업에 여성들이 노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성 참석자들은 각종 홍보책자를 챙기면서 '여성도 100% 취업할 수 있는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현대 미포조선 협력업체인 유연산업 이춘화 사장은 "취업난과 맞벌이 추세가 확산되면서 조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 기능인력은 남성보다 이직률이 낮고 꾸준히 기량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어 적극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용 규모를 늘려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폴리텍V 목포대학 나병규 교수는 "조선기능 업무는 무게 7kg정도의 용접기를 들 수 있을 정도의 근력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남도 내 조선업체의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에 13명,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에 600여 명의 여성 기능인력이 이미 일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조선기능인력 양성 훈련'을 통해 'Q2'(국제선급 자격증)를 획득한 이정미(40)씨〈본보 지난해 8월 5일자 1면〉 등 여성 3명도 삼호중공업 협력업체인 유일기계와 대불산단내 원당중공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해 있는 등 조선산업이 여성들의 새로운 삶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박만호 전남도 전략산업과장은 "현재 전남도 내에 3개 중·대형 조선소가 건설중이며 대불산단 등에도 조선관련 기자재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조선기능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 기능인력을 적극 양성,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9억7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어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오는 2008년 10월까지 3년 동안 모두 1천350명의 조선기능 인력을 양성키로 했으며, 지난해 배출된 1·2기 훈련생 200여 명은 전원 조선업체에 취업했다. 3기 훈련생 120명은 다음달 12일 수료예정이며, 4기 훈련생은 다음달 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與의원 내주 집단탈당

20여명 5일께…양형일·우윤근·주승용 등 동참

열린우리당 강경 탈당파 의원 20여명이 탈당계를 작성하고 이르면 5일께 집단 탈당에 나설 예정이어서 집권 여당의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

열린우리당 탈당파 핵심 의원은 2일 기자와 만나 "최근 뚜렷한 탈당 의사를 나타낸 의원들로부터 탈당계를 제출받았으며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장이 넘는다"며 "다른 의원들이 확보한 탈당계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5장은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탈당계 제출은 기존의 탈당 서명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며 "특히 이번 주말을 계기로 더욱 많은 의원들이 탈당계 작성에 나설 전망이어서 전체적인 탈당 규모는 경우에 따라 30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 시점과 관련, 이 의원은 "일단 내주 중에는 탈당이 이뤄질 것이며 이르면 주말 직후인 5일이나 6일이 유력하다"며 "탈당과 함께 교섭단체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탈당계를 작성한 의원들은 김한길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단 출신 그룹과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관료·학계 출신 그룹, 충청권 및 호남권 일부 의원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양형일, 우윤근, 주승용 의원 등이 탈당계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탈당파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섬에 따라 김근태 의장과 문희상, 정세균 의원 등 당내 중진 그룹은 탈당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탈당을 만류하고 있다.

여기에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도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당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만나 '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장상 대표 주재로 대표단회의·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초·재선 그룹과 동시에 탈당,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에 대해 논의했으나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독자생존론'에 반대해온 당 소속 의원들의 거취는 물론, 이들과 신당 창당을 모색해온 여당 초·재선 의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

"임대주택 매각 안되면 전세 전환"

권오규 부총리…"민간 미분양 매입, 임대 가능"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주택시장에 전세수요가 많이 있으므로 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이 안될 경우 이를 전세임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임대주택의 향후 매각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매각이 안되는 상황에서 20%라는 임대주택의 재고량 목표를 유지하면 연간 5만호씩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공이 그 자금을 활용해 장기임대주택을 인수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전세 연계한 자금을 동원하면 펀드의 청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하면 매각 시기가 됐을 때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매각시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가지 임대조건을 검토해 향후 좀더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비축용 임대주택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해 입주자 선정 및 매각 방식 등은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면서 "건설시기와 규모, 실제 임대료 수준이나 보증금 등은 지역별 시장여건에 따라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공이 매입 임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임대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부분도 일부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문제와 관련해 "현재 역외펀드 운용사들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